

광주 “박근혜 퇴진” 10만 촛불 5·18 이후 첫 ‘민주성회’ 연다

검찰 수사·퇴진 거부 버티기 ... 분노의 민심 19일 금남로서 시국대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야권의 퇴진 촉구를 외면한 채 검찰 수사 지연 등 버티기를 시도하자 성난 민심이 더 뜨겁게 타오를 전망이다.

〈관련기사 2·3·4·5·6면〉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일부 책임을 시인했으나 개각→책임총리 추진 등으로 시국 안정을 꾀하던 박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했던 검찰 수사를 미루더니 16일 외교부 2차관을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에게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등 국정 운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촛불’은 ‘햇불’로 커질 조짐

이다.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오는 19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면서 여론이 악화된 데다, 주최 측도 역량을 총동원하기로해 ‘10만 촛불’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최 측은 80년 5월 광장에서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듯이 이날 5·18민주광장에서 ‘민주성회’를 열기로 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민주노총·진보연대 등 광주지역 9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각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말인 오는 19일 오후 6시 광주 금남로에서 ‘광주시민 10만

시국촛불’을 밝히겠다고 16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4시간동안 열리는 촛불집회에 연인원 1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최측 계획대로라면 국립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과 금남로4가까지의 5차선 도로가 꽉 메워질 것으로 보인다. 1991년 5월 전남대생 박승희양의 분신사망 당시 금남로 노제에 10만 인파가 모였던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동본부는 ‘모이자! 분노하자! 광주 10만 시국촛불’을 총 3부로 진행한다.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열리는 1부에서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자유발언이 쏟아지

고, 이어 오후 7시부터는 2시간 동안 노동·학생·시민단체 등 각 부문별로 시국에 대한 입장 발표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

3부는 80년 광주시민들이 시국을 논하며 하나로 뜻을 모았던 ‘민주성회’를 재현한다.

시국선언도 붓물처럼 타지고 있다. 광주 시의사회는 16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와 국정농단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혁신을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분부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박근혜는 지금 당장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오후 늦게 촛불집회를 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통령이 의혹중심 내일까지 대면조사”

검찰, 靑에 입장 전달

최순실(60·구속)씨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연기 요청’을 한 데 대해 검찰이 아무런 늦어도 18일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대면조사 방침도 재확인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어제 변호인 발인으로 봐서는 내일(17일)도 쉬워 보일 것 같지 않다”면서 “저희가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선임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이날 조사가 불가능하며,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사 연기 요청을 했다. 여기에 검찰이 다시 ‘18일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면조사가 어려울 때 서면조사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는 저희가 (조사 내용을) 보내고 받고 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대면조사보다 더 불가능하다”며 대면조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순실



“수능 잘 보세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하루 앞둔 16일 광주시 남구 대성여고 교정에 도열한 1, 2학년 학생들이 교사장의 예비소집 장소로 향하는 수험생 선배들을 응원해주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고 비난과 지탄을 한몸에 받는 입장이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최순실씨를 기소할 예정인 19일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롯해 여러 방법을 강구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강진만에 온 겨울진객 큰고니 ▶11면

숲속의 전남-순천 문성 율나무 ▶18면

슈틸리케호 5경기서 4승 해야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관광객 많은 전주~여수 SRT 전라선 운행해야

〈수서발 고속철〉

호남 7개 시·군 단체장 촉구

주철현 여수시장 등 전라선 권역 7개 시·군 단체장은 16일 정부에 철도정책의 전라선 차별 중지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2면〉
이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라선권 KTX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수서발 고속철(SRT) 전라선(수서~여수) 운행 ▲용산발 KTX 전라선 증편 ▲전라선 고속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

전라선 KTX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어 전라선 KTX 활성화와 전라선 권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주문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처럼 전라선 협의회 시장·군수들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키우는 것은 다음달 운행 개시 예정인 SRT가 전라선에는

운행하지 않아 지역민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SRT는 현행 KTX보다 요금은 평균 10%, 최대 15%까지 저렴하고 운행시간도 광주 송정역 기준으로 1시간 30분 걸려 KTX 1시간 50분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전주부터 여수까지 전라선권 지역민들만 배제돼 있다.

특히 여수는 문화관광연구원의 지난해 지역별 관광객 통계 결과 방문객이 1358만 5000여명으로 전국 1위인 경계용인(1천399만8000명)을 위협할 만큼 많았지만 교통편이 뒷받침하지 못해 성장세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라선 구간에는 전주한옥마을과 남원 춘향테마파크, 곡성 기차마을 그리고 구례 국립공원 지리산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광양 대하축제, 여수세계박람회장 등이 있어 교통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수능 ‘대박’ 나세요	
✓ 꼭 챙기세요 신분증·수험표·컴퓨터용 사인펜·수정제이프(원색)·흑색 연필·지우개·사프스(흑색, 0.5mm)·아날로그 시계	✓ 두고 가세요 휴대전화·전자사전·스마트워치·디카·mp3·전자식 표시장치 시계 등
✓ 알아두세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 지각 우려되면 112 전화, 시험장 변경 200m 차량 통제	✓ 대비하세요 컨디션에 따라 벗을 수 있도록 얇은 옷 겹쳐 입으세요

오늘 수능 ... 광주·전남 85개 시험장 3만8940명 응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광주·전남 85개(광주 38·전남 47) 시험장을 비롯, 전국 118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수험생은 60만 5988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5199명 감소했다. 광주에서는 2만744명이 응시, 전년도보다 733명이 줄었고 전남에서는 전년도(1만8768명)보다 572명이 감소한 1만8196명이 응시한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한다.

시험은 1교시(오전 8시40분 ~ 10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2교시(10시30분 ~ 12시10분) 수학, 3교시(오후 1

시10분 ~ 2시20분) 영어, 4교시(오후 2시50분 ~ 4시32분)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5교시(오후 5시 ~ 5시40분) 제 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된다. 성적은 12월 7일 통지된다.

수능날 광주 최저 기온은 6도, 전남은 3~10도로 포근한 날씨에 예상된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수험생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관리에 들어간다. 이날 아침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0시 1시간 늦춰지고 시내버스는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